

두란노 소식

두란노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두란노교회 창립 3주년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노승환목사님(밀알교회)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은혜가운데 2018년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3월 30일 금요일은 성금요일예배로 지키게 되며, 4월 1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두 번의 예배에 성찬식이 모두 있으며, 특히 부활주일에는 세례식도 드리지게 됩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 25일과 다른 날 세례교육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4. 3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를 드리게 되고, 4월 1일은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모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5. 4월 19일(목 저녁)부터 22일(주일 오후)까지, 광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홍종관 목사님을 모시고 봄부흥성회를 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성회는 시온성교회와 연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19일(목) 저녁, 20일(금) 저녁, 21일(토) 저녁예배는 두란노교회에서 드리게 되고, 21일(토) 새벽과 22일(주일)은 셰퍼드 & 베이뷰에 위치한 시온성교회(15 Clairtrell Rd, North York, ON M2N 5J7)에서 함께 드리게 됩니다.
6. 9월 1일(토)~9월 3일(월 Labour day)까지 소망기도원에서 2018 전교인 여름수양회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00
새벽 예배 화~토 오전 6:00

신앙 상담
647.980.5791
89 Finch W, North york ON, M2NH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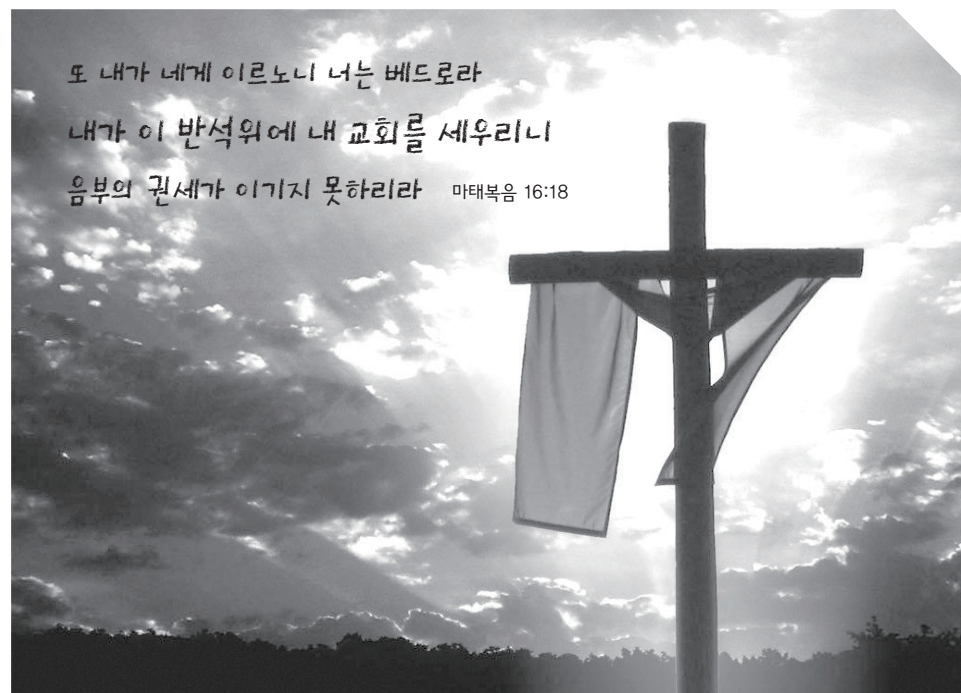
통권 4권 _ 제 11호
MARCH 18, 2018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두란노 교회

D / U / R / A / N / N / O C H U R C H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섬김의 손길

담임목사	이강화 목사
찬양팀	인도 구수진 사모, 강지연, 김샬리 연주 오준성, 윤유진, 이웅희, 이기준, 장지혜 기술 이기훈, 한정훈, 박지은
대표기도자	25일 서지희 / 4월 1일 박현미 / 8일 조정현 / 15일 윤익수
예배위원	3월 황우경 / 4월 윤용준

두란노교회 창립 3주년 감사예배

MARCH 18, 2018

사회 : 이강화 담임 목사 / 설교 : 노승환 목사 (밀알교회)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 구수진 사모)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시온성과 같은 교회 - 찬송가 210장
대표 기도	-----	최다혜 자매
두란노 교회 소개	-----	사회자
성경 대독	-----	요나서 2:1~10 사회자
헌금	-----	[헌금위원장: 최다혜 자매, 황우경 집사] 셀장 특송
헌금 기도	-----	노승환 목사 (밀알교회)
말씀 선포	---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교회” 노승환 목사 (밀알교회)
통성 기도	-----	다같이
축도	-----	노승환 목사 (밀알교회)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샘

부서짐의 축복 | 180311 주일예배
레위기 2:1~2

믿음의 사람들은 부서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의 씨앗이 임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땅이 먼저 고운 흙으로 부서져야 합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부서짐을 통해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부서짐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짐승의 피와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려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 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제사로 구별한 소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묵상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 철저히 부서져야 합니다.

레위기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롭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루보다 더 곱고 가늘게 빻은 가루여야 하며, 만졌을 때 알갱이가 없이 부드럽게 될만큼 부서지고 깨어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밀을 도정하는 과정을 보면, 도리깨로 얻어맞으며 껍질이 벗겨지고 채로 쳐서 껍질을 바람에 날리고, 곡식 알갱이를 맷돌로 갈아 완전히 부서지고 뺀어진 가루를 얻어냅니다. 한 번의 맷돌질로 끝이 아니고 알갱이는 또 들어가고 덜 갈아진 알갱이도 다시 맷돌에 집어넣으며 많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면 딱딱한 알갱이는 단단한 고집과 교만, 자기 의, 불신, 자존심, 미움, 분노와 증오, 판단과 교만, 야망과 욕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적이며, 또 죽어지지 않는 자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도 부서지지 않은 통밀알의 상태로 직분을 맡고, 안배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진정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예배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깁니다. 제자도의 첫 시작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우선되는 준비입니다. 부서짐입니다.

둘째, 부서진 가루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레위기 2: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5 철판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6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7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굵은 부치든 어떤 모양이든 꼭 첨가 되는 것이 기름입니다. 영혼을 말든, 청소를 하든, 목회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부서진 그 사람의 삶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며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보증하시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은혜를 예배때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13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세 번이나 소금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꼭게 부서진 가루위에 더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부서진 제물에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11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제물위에 꿀이나 누룩과 같은 세상 것은 넣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나를 죽이고 순종하고 부서뜨리는 삶을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지키십니다.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져서 간절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3주년을 맞이하는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복된 부서짐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도 신령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